

# “첫 국가대표 긴장되지만 더욱 성장해 이름 널리 알리겠다”

### 수구 대표팀 발탁 남부대 노선호 센터백 포지션에 체격 최적화 “이번 경험 토대로 더 발전할것”

2025년 국가대표 수구팀에 발탁된 노선호(남부대)가 “모두에게 이름 알릴 수 있도록 성장하겠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남부대 스포츠레저학과 2학년인 노선호는 최근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진행된 2025년 수구 국가대표 선발 대회를 통해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았다. 노선호는 “열심히 준비했던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 처음 뽀빠지 보니까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중학교 3학년 때 수구를 시작해 경남체육고를 거쳐 남부대에 진학한 노선호는 대표팀 선수들의 열정적인 경기 모습을 보며 태극마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다졌다.

“대표팀이 경기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 일원으로 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힌 노선호는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그렇게 수영을 잘하지 못해서 운동을 그만둘까 생각도 했는데, 부모님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조금만 더 해보자’고 다독여 주셨다. 나중에 수구가 잘 맞다는 걸 깨닫고 완전히 전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구는 수중 경기장에서 각 7명으로 이뤄진 두 팀이 상대방 골대에 공을 넣어 득점을 겨루는 경기다. ‘수중 격투기’라고도 불릴 만큼 신체 대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에 힘과 지구력을 필요로 한다. 센터백 포지션인 노선호는 긴 팔다리와 수비에 최적화된 체격을 갖고 있다. 그는 “물 밖에서 운동할 때보다 물 안에서 할 때 힘이 잘 써진다”며 “이번에 선발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경기 중에 가능성을 느꼈다. 컨디션이 좋아서 더 자신감을 갖고 임했다”며 선발전을 되돌아봤다.

또 “경기하면서도 팀원이라 소통을 좀 많이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다 보면 내 것을 놓치고, 내 것만 하다보면 큰 그림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앞으로 말을 좀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려 한다”며 “대학 생활과 훈련을 잘 병행하며 경험을 쌓고 싶다. 대표팀에서도 잘 적응하고, 남부대 팀원들과도 함께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를 지도한 스포츠레저학과 이승재 교수는 “운동과 학업을 성실히 잘 따라와 준 노선호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이 선수들에게 모범이 될 것 같다. 팀이 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같아서 기쁘고 대견스럽다”고 전했다. 노선호는 “나중엔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선수가 되는 게 꿈이다. 내년엔 발을 국가대표 훈련과 쌓게 될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내후년에도 국가대표로 발탁돼 2026년 아시안게임에서 활약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jinggi@kwangju.co.kr



2025 국가대표 수구팀에 선발된 남부대학교 2학년 노선호.

<남부대 제공>

## ‘반 이기흥’ 단일화 무산...유승민 체육회장 선거 후보 등록

### 이기흥·강태선·김용주와 경쟁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위한 공식 절차를 마쳤다. 유승민 후보는 체육회장 후보 등록 마감일인 2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또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도 후보 등록을 마쳐 등록 완료자는 이기흥(69) 현 회장과 강태선(75) 서울시체육회장에 이어 4명으로 늘었다. 유승민 후보는 앞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 선수들과 학부모들, 최저시급밖에 되지 않는 체육인들, 그리고 갈수록 멀어지는 스포츠 관심과 비중으로 취재 환경마저 현저히 어려워졌다”면서 “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다시금 희망과 행복으로 바꿔드리기 위해 저 유승민이 대한체육회장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체육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지방체



체육회장 선거 후보 등록 마친 유승민 후보(오른쪽). /연합뉴스

육회 및 종목 자립성 확보를 통한 동반 성장 ▲선수 & 지도자 케어 시스템 도입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젝트 ▲생활체육 전문화를 통한 선진 스포츠 인프라 구축 ▲글로벌 중심 K-스포츠 ▲대한체육

회 수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자생력 향상 등을 제시했다. 탁구협회 수장이던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의 별세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019년 5월 탁구협회장에 올랐던 유 후보는 2021년 11월 선거에서 재선돼 4년 더 임기를 수행하다가 체육회장 출마를 위해 지난 9월 사임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그는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탁구가 혼합복식과 여자단체전에서 각각 동메달을 수확하는 등 12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내는 데 앞장서고 탁구 부흥을 주도했다.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김용주 후보도 “여러 사람을 만나 체육계 현안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대한체육회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 정몽규·신문선·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3파전 ‘킵오프’

### 후보 등록 마쳐...선거는 내년 1월 8일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시작으로 대항마로 나선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와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차례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정몽규 후보는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25일 오후 대한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며 출마자 가운데 가장 먼저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1994년 울산 현대(현 HD) 구단주를 시작으로 30년 동안 축구계와 인연을 이어온 정 회장은 2013년 1월 경선을 통해 축구협회 수장을 처음 맡은 뒤 2, 3선에 성공했고, 이번에 4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 회장은 지난 19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과감한 개혁을 통한 축구협회 신뢰 회복 ▲한국 축

구 국제 경쟁력 제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완성 ▲디비전 승강제 완성을 통한 축구 저변 확대 등 4가지 사항을 약속했다. 특히 한국 축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 2026 아시안컵 4강, 2027 아시안게임 금메달, 2027 아시안컵 우승, 2028 올림픽 메달 획득을 목표로 내세웠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신문선 교수도 이날 오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신 후보는 1983년부터 유공 축구단에서 선수로 3시즌을 뛴 뒤 일찍 현역에서 은퇴했고, 1986년부터 방송 해설가로 활동하며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 2007년부터는 명지대 교수로 일했고 2014년엔 성남FC 대표이사를 맡아 축구 행정가로도 경력을 쌓았다. 태극마크를 달고 1979년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를 비롯해 메르테카컴과 킹스컵에도 출전했다. 신 후보는 선수 은퇴 후 스포츠웨어 브랜드에서 일하고 해설위원으로 활동한 경험, 프로축구단 사

장을 비롯해 다양한 행정에 참여해 온 경력 등을 통해 축구협회의 변혁을 이끄는 ‘전문 CEO’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은 출마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후보 등록 절차를 끝냈다. 허 후보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때 국가대표팀 사령관으로 한국의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을 달성했던 지도자 출신 행정가다. 2013~2014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시작으로 행정가로 변신해 2015~2019년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를 거쳐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으로 일했다. 그는 축구협회의 열린 경영과 활발한 소통,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의사결정, 팬들의 참여를 보장할 조직과 문화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은 오는 27일까지다. 선거는 내년 1월 8일이다. /연합뉴스

## “후배에게 기회를”...탁구 이상수, 태극마크 반납

### 종합선수권 남자 단식 첫 우승

한국 남자탁구의 ‘말형’인 이상수(34·삼성생명)가 국내 최고 권위의 종합선수권대회 우승으로 받은 태극마크를 반납하는 ‘아름다운 퇴장’을 선택했다. 이상수는 17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삼척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제78회 애경게임칼 전국남녀종합선수권에서 남자 단식 우승으로 부여된 국가대표 자동선발권을 후배들에게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탁구협회는 이번 종합선수권 남녀 단식 우승자에게 내년 국가대표로 자동 선발되는 혜택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종합선수권 남자 단식에서 처음 정상에 오른 이상수와 3년 만에 여자 단식 정상을 탈환한 이은혜(29·대한항공)에게 남녀 국가대표 자동선발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상수는 종합선수권 남자 단식 결승에서 팀 후배 조대성을 3-2로 꺾고 우승한 직후 “더는 국가대표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이 태극마크를 내려놔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국 탁구를 위해서는 내가 양보해야 오준성, 박규현 등 어린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국가대표 자동선발권 반납 의향을 밝혔다. 이상수는 이어 “여자탁구는 올해 파리 올림픽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는 등 성과를 냈지만 남자 대표팀은 그렇지 못했다”면서 “다음 (2028년) LA 올림픽에서는 남자팀도 메달을 따면 좋겠다”고 회



종합선수권 남자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상수가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망했다. 이철승 삼성생명 감독도 24일 남자단체전에서 3년 만에 정상을 탈환한 뒤 “이상수 선수의 뜻을 팀에서도 받아들여야 했다”면서 “이상수 선수가 국가대표를 물려주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높게 평가했다. 이 감독은 이어 “이상수 선수가 종합선수권 단식에선 우승 타이틀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우승해 의미가 크다”면서 “단체전에서도 만행담에 상대 선수를 꺾어 주 우승에 디딤돌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탁구 국가대표 선발전은 내년 1월 12일부터 24일까지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 프로농구, 크리스마스 ‘S-더비’ 시즌 최다 관중

### SK대 삼성 경기 5225명 입장

프로농구 대표적 이벤트 중 하나인 크리스마스 ‘S-더비’에서 서울 SK가 올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썼다. 프로농구 대표적 이벤트 중 하나인 크리스마스 ‘S-더비’에서 서울 SK가 올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썼다. 25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SK와 서울 삼성의 2024-2025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경기에 총 5225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SK의 올 시즌 최다 관중이자 일곱 번째 매진 기록이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울산 현대모비스 전에서는 5014명이 입장한 게 올 시즌 SK의 최다 관중 기록이었다. 프로농구 S-더비는 서울 잠실의 학생체육관을

사용하는 SK와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삼성의 맞대결로,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열리는 프로농구 흥행 매치 중 하나다. 크리스마스 S-더비엔 2018년 6810명, 2019년 7634명이 입장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은 2020년에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고, 2021년에는 2701명이 경기를 찾았다. 코로나19의 영향이 꺾인 2022년엔 5210명, 지난해엔 5209명이 직접 관람했다. 이날까지 S-더비엔 3년 연속 5000명 넘는 구름 관중이 모여들며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은 인기를 구가하는 프로농구 더비로서 위상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즐거움

# 문화 산책

## 광주예술의전당

###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화첩에 무등을 담다 : 조양희 개인전

일시 : 2024-12-6(금) ~ 2024-12-29(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391회 정기연주회 '2025 신년음악회 New Wave'

일시 : 2025-01-15(수) 19:30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241